14년간 매일 1000원씩 … "학생들 위해 모았죠"

송원대 정아란 교수 퇴임식에서 장학금 전달

매일 2000원씩 모아 14년간 매달 굿네이버스에 기부도
장학금 성적 아닌 인성·효도 기준으로 수혜대상 선정 당부

정아란(오른쪽)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최근 퇴임식에서 장학금 519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대학본부 2층 총장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519만원이 적힌 수표와 편지를 최수태 총장에게 전달했다.

정 교수는 편지에 "그동안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1가지씩 성취하며 희열을 맛봤다. 마지막 버킷리스트(장학금 기부)를 실천하는 데 총장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썼다.

지난 2006년 송원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14년에 걸쳐 기부금을 모았다.

그는 매일 도시락을 싸 오며 점심값을 아꼈고, 대신 하루 3000원씩 저금했다. 이 중 2000원씩 적립해 모은 돈은 매달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 나머지 1000원은 이번 장학금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

정 교수는 "(학교에서)나갈 때 학생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쓰겠다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장학금이 유아교육과 재학생이자 부모·이웃에게 효도하는 학생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성적이 아닌 인성, 효도를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선정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 교수는 "이번 기부가 씨앗이 되어 다른 분들도 (기부에) 동참해 준다면 더 기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그동안 송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신 정 교수님으로부터 너무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을 받았다"며 "교수님의 바람처럼 무엇보다 인성이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방호복 엄청 덥죠? 코로나 고군분투 감사해요" … 학생들 전남대 의료진 위로

경기도 용인 은혜샘물초
전남 광양여고 등 선물 전달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초등학생들이 보배온 손편지와 '힘내세요' 글자를 들어보이고 웃고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제공〉

경기·전남지역 학생 등이 코로나19 치료에 힘쓰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에게 뜻깊은 선물을 전달했다.

2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은혜샘물초교 학생들과 전남 광양여고 학생들이 연필로 쓴 감사 편지와 그림, 과자와 음료를 보내왔다.

은혜샘물초 학생들은 '인내'를 주제로 한 성품관련 수업시간(지도교사 정도희)에 무더위에도 방호복을 입고 진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각종 과자류를 담은 개인별 비닐봉지에 색종이 편지를 넣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 학생(2년)은 또박또박 쓴 편지에서 의료진의 건강을 챙겼다.

"인내 많이 하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께 방호복 입으니까 엄청 덥죠? (중략) 방호복 입어도 건강하길 기도해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힘내서 일 열심히 하세요."

광양여고생 30여명도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고 위로물품도 보내왔다.

의사가 꿈이라는 한 학생(2년)은 "코로나19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두터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다"면서 "지금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처럼 강하고 책임감 있고 자랑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학생들이 보내온 편지와 위문품을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사

◆조선대

▲경상대학 학장 조승제 ▲언어교육원장 박영신 ▲글로벌인문대학 학장 이상원 ▲글로벌인문대학 부학장 차희정

광주신세계, 수해복구 지원금 1000만원 전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사진)는 1일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실에서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 지역 수재민을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나눔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이동훈 대표와 김천수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신규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장마로 인해 아직도 힘들어 하는 소외계층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번 지원금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4월 광주청년센터에 코로나19 긴급구호물품 비용을 전달하고 어린이 놀이키트, 소아암 환우 치료비, 전남지역 소외가정 여름 이불 등을 잇따라 지원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법무부 법사랑위원 담양지구협의회, 초·중·고 방역활동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담양지구협의회(회장 서생현) 회원들이 최근 담양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방역 봉사활동을 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담양 23개 기관에서 방역활동을 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담양지구협의회 제공〉

E1에너지·KLPGA 선수단, 의료진에 상품권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가 최근 순천의료원(원장 정효성)에서 전남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기부 물품은 LPG전문기업 E1에너지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선수단이 최근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LS네트웍스 상품권'으로, 이 중 300매가 전남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전달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30 2020 메이저리그 〈St.루이스:신시내티〉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KBS 시청자 주간 아침마당 〈시청자, KBS를 말한다〉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30 기분 좋은 날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재) 55 UHD 숨터	00 그놈이 그놈이다(재)	15 백파더 요린이 레시피 20 내가 가장 예뻤을 때(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헬로카봇 9 리턴즈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55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튜더뮤직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제보자들(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아파트: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액션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다Q	50 앙코르 인간극장(재)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남도애 가요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기막힌 유산	30 제보자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트롯신이 떴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특집 다시 보는 동백꽃 필 무렵	30 내가 가장 예뻤을 때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50 라디오스타 1~2부	35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스튜디오 K		
12	10 KBS 시청자 주간 국제공동제작 아시안피치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통합뉴스룸 ET(재)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나이트라인 40 내고향 전파(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08:45 위인극장 리턴즈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한명숙의 옥수수술빵×황태호박국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2:25 지식채널e
12:30 클래스 e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EBS 초대석
14:45 미니특공대X
15:45 머털도사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17:20 야옹멍멍 귀여워2
17:30 로빈 후드
17:45 히어로 써클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19:30 자이언트 펭TV
19: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20:35 경이로운 지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한시로드, 천하제일경 -여기가 무릉도원〉
21:30 한국기행
〈숲속에서 삽니다 3부 내 마음의 쉼표〉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23:4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음 7월 15일 戊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지 말고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48년생 깊이 연관 되어 있음을 감안 해야겠다. 60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바가 무너질 수 있다. 72년생 준비 해 왔던 바의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84년생 뜻을 확실히 펼쳐도 좋을 때가 되었다. 96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수이니 부족함이 없다. 행운의 숫자 : 26, 68

丑 37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49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61년생 드디어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되었도다. 73년생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니라. 85년생 숨은 뜻을 이해해야만 풀어 나갈 수 있다. 97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9, 55

寅 38년생 부지런히 챙겨야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50년생 집착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자. 62년생 사소한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74년생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86년생 작정하여 왔던바 대로 모색하면 유리한 판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98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행운의 숫자 : 54, 59

卯 39년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임하는 것은 중하다. 51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63년생 놀라는 일이 생길 수이다. 75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니라. 87년생 상대의 반응에 예의 주시해야 하느니라. 99년생 형편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함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3, 83

辰 40년생 효과를 보지 못 하리라. 52년생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64년생 처음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리라. 76년생 절실히 필요로 하여왔던 바를 얻을 수도 있다. 88년생 성사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00년생 체계를 그르치면 행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행운의 숫자 : 13, 84

巳 41년생 무리한 판단을 자제하고 순리적으로 처리함이 해법이다. 53년생 상황이 경색되기 전에 융통을 부리는 것이 맞다. 65년생 변동수가 보이니 이를 감안 해야겠다. 77년생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충일에 힘써야겠다. 89년생 평온하게 진행 될 것이니 우려할 바는 아니다. 01년생 지금 실행 해 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행운의 숫자 : 38, 60

午 42년생 실제적인 내용이 충만해야 빛을 보게 된다. 54년생 인내의 한계에 도달 할 수 있다. 66년생 길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득세하게 될 것이다. 78년생 강하고 잦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하라. 90년생 가까운 이와의 인연이 길사로 연결되겠다. 02년생 순리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 행운의 숫자 : 30, 54

未 31년생 찾아가서 청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43년생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55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날이다. 67년생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79년생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기별이 올 것이니라. 91년생 예방만이 안전을 도모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90

申 32년생 목적해 왔던 바와 조우하게 되는 뜻 깊은 날이 될 것이로다. 44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56년생 무난하리라. 68년생 물꼬가 트이면서 기쁨이 보인다. 80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리라. 92년생 차별화 시키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97

酉 33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새로운 면모를 읽을 수 있다. 45년생 취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57년생 여유로움이 완벽함을 담보할 수 있다. 69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81년생 극한 상황에서 선회하는 성국이니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겠다. 93년생 현실적인 실리가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34, 86

戌 34년생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46년생 정성껏 가꾼다면 알찬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을 맞게 된다. 58년생 정성으로써 도의를 다 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70년생 협조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82년생 인식을 잘 해야 쉽게 적응할 수 있느니라. 94년생 호흡을 맞추어야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2, 72

亥 35년생 시시한 것을 가까이 하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47년생 절호의 찬스를 잘 활용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59년생 작은 흠결이 결정적인 패착의 원인이 된다. 71년생 주견이 필요하도다. 83년생 많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느니라. 95년생 아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89